

각종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건강관련 정보원이다. 심지어 의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영역에 대한 의학정보는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질병에 대한 일반국민들과 의료전문가들의 인식 및 태도는 대중매체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행 여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새로운 질병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더욱 크게 발휘된다. 글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사회의학

# AIDS 보도,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가 편견과 차별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HIV 감염인이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AIDS는 그 역사가 25년에 불과한 신종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유행 초기, AIDS는 곧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 질환을 ‘현대판 흑사병’ 또는 ‘공포의 괴질’로 묘사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다. AIDS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대중매체에 부여된 역할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HIV/AIDS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아직 특효완치제의 개발만 안 되

었을 뿐 원인, 전파기전, 예방수칙 그리고 감염인의 건강유지방법은 모두 규명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의 역할도 변화되었다. 감염예방은 물론 HIV에 감염된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요청받게 된 것이다. HIV 감염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대한 옹호는 AIDS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그 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물론 국민들에게 HIV/AIDS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중매체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HIV/AIDS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도외시

한 초기 외국 언론들의 보도경향은 우리나라의 대중매체들에게 여과없이 유입되었다. 필자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1982년 7월 20일자 A 일간지 사회면에 게재된 "미국 등에 미지의 괴질 크게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우리나라에서의 HIV/AIDS 관련 최초 보도였다. 최근에 와서는 HIV 감염인의 삶의 질과 인권문제도 가끔씩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포를 조장하거나 자극적 소재로서 HIV/AIDS 문제에 접근하는 보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외형이 일반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무증상 기간의 HIV 감염인들의 삶의 모습보다는 말기 AIDS 환자들의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더욱 빈번히 소개되었으며,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보편적 인권문제보다는 극소수 감염인의 일탈행위가 더욱 흔하게 고발되어 온 것이다. 대중매체는 HIV/AIDS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우를 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대중매체 속에서의 HIV/AIDS에 대한 묘사 사례〉

▶ "AIDS 처녀 분풀이 행각" 과소문 사절(00일보, 1990년 6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서울 강서구 일대에 퍼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AIDS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일종의 분풀이로 남자들을 유혹하거나 어린이들에게 입맞춤을 해 AIDS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 서울 강서구 신월2동에 사는 회사원 주모씨(34)는 "입에 올리기도 알맞은 소문을 최근에 이웃 사람에게 들었다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척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 MBC '사랑의 스튜디오' (00신문, 1995년 5월)  
끔찍한 AIDS 설문 여과 없이 방영/시청자들에 '잔인한 웃음' 강요... 개그나 코미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궁기가 없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코미디가 인기 있는 나라일수록 열린 사회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그·코미디 프로그램이 연출해내는 웃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문화방송의 청춘남녀 짝짓기 프로그램(사랑의 스튜디오)(연출 최영근)에서 소개한 '러브 앙케이트'의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잔인한 웃음'을 강요했다. 이날 러브 앙케이트의 주제는 '만었던 애인이 AIDS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한 20살 이상 여성 1백 명의 의견을 소개한 개그우먼 이강실이 '재미있게 억지 포장'을 하면서 생겨났다. 답변 가운데 '죽어버린다'(5명은 내용이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끔찍한 얘기를 그대로 공개하고 기발한 생각인양 '박장대소'를 하며 가볍게 처리한 것이다.

▶ 'AIDS 여성, 수백 명과 성관계'(00일보, 2002년 6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1년5개월여 동안

수백 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5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전남 여수역 부근에서 콘돔 사용 등 예방조치 없이 하루에 최대 10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에이즈 감염자인 구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며 "전체 상대 남성 중 절반 정도와는 콘돔 등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 AIDS 공포, 珍島 '달달', 30대 女환자 맘대로 환보, 수군대면 깨물듯 덤비고...(00신문, 2003년 5월)  
전남 진도군 본섬의 한 평화롭던 마을 주민들이 요즘 'AIDS 공포'에 떨고 있다. 8일 진도군의 한 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IDS 환자는 사실을 속이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풀려나 30대 AIDS 환자(31.여) 때문에 마을 전체가 AIDS 감염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 AIDS 환자는 지난 3월 병세 악화 형 집행이 정지돼 고향으로 왔다. 마을주민 1사(73)는 "어미 몸이 반점이 확연히 드러날 만큼 병세가 진전된 AIDS 환자가 대중목욕탕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물러는 듯 덤비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1사(여.39)도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이 외출을 꺼릴 정도"라면서 "동네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보건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모 등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AIDS 환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1주일에 한번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볼 뿐 격리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HIV/AIDS에 대한 취재보도를 하려는 언론인마저도 일반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취재에 응할 때마다 느끼곤 한다. 대중매체가 HIV/AIDS와 관련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주요원인을 언론인과 같은 대중매체 관계자 스스로의 그릇된 지식과 태도 탓으로 돌리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인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다.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언론인들의 지식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언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보건기관과 HIV/AIDS 관

련 민간단체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를 발간한 것이 그것이다. 전직 기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발간에 참여한 이 책에서는 언론인들이 알아야 할 HIV/AIDS 기초지식과 보도자료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차별과 편견 해소를 선도해야 하는 언론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이 지침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로서는 이 지침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HIV/AIDS 관련 취재보도시 권고사항(질병관리본부, 2006)〉

- 1 HIV감염인/AIDS환자의 직업, 사회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와 감염인이 활동의 자유를 억압받았을 경우, 이를 적극 알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2 HIV감염인/AIDS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성(性)파트너의 주소와 성명, 직업 등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보도는 물론이고 취재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 3 HIV감염인/AIDS환자를 그들의 감염경로(성접촉, 수혈감염, 미약주사 등), 성(性)정체성(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등), 직업, 남녀노소 등을 따져 차별하는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 4 에이즈를 '신이 내린 형벌', '천형' 과 같이 비과학적인 비유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지 않도록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에게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을 찍거나 이를 부추기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5 에이즈 감염확률이나 에이즈와 관련한 새로운 통계, 이론, 학술적 내용, 에이즈 치료제, 백신 개발, 에이즈 관련 국제 뉴스 등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보건당국 및 관련학회가 인정하는 에이즈 전문가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은 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6 언론은 에이즈 또는 HIV감염인/AIDS환자 관련 보도 시 그 보도가 사회나 사회구성원에게 끼칠 영향을 미리 살핀 뒤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7 언론은 에이즈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보도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자제하며, HIV감염인/AIDS환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